

ELS의 이해



한국자산평가
파생평가사업본부
주식파생평가팀 김영현

• 목차



1. ELS란?

2. 2018년 기준 ELS 발행 현황

○ 3. ELS 특성

4. ELS 손익구조 (KI Step down)



5. ELS 대표 사건 (H지수 급락, 2016년 초)



1. ELS란?

1-1 ELS의 정의

주가연계증권(ELS; Equity Linked Security)은 개별 주식의 가격

또는 특정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**특정 시점에 특정조건 충족시**

약정된 투자손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.

-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-

1-2 ELS의 주요역사

[2002년 2월]

증권거래법시행령 신설로 증권회사의
장외파생금융상품의 취급 근거가
마련되었음

[2003년 4월]

증권사가 발행한 최초 공모형 ELS 등장

[2010년]

당해 ELS 발행 10000건 돌파
(25조 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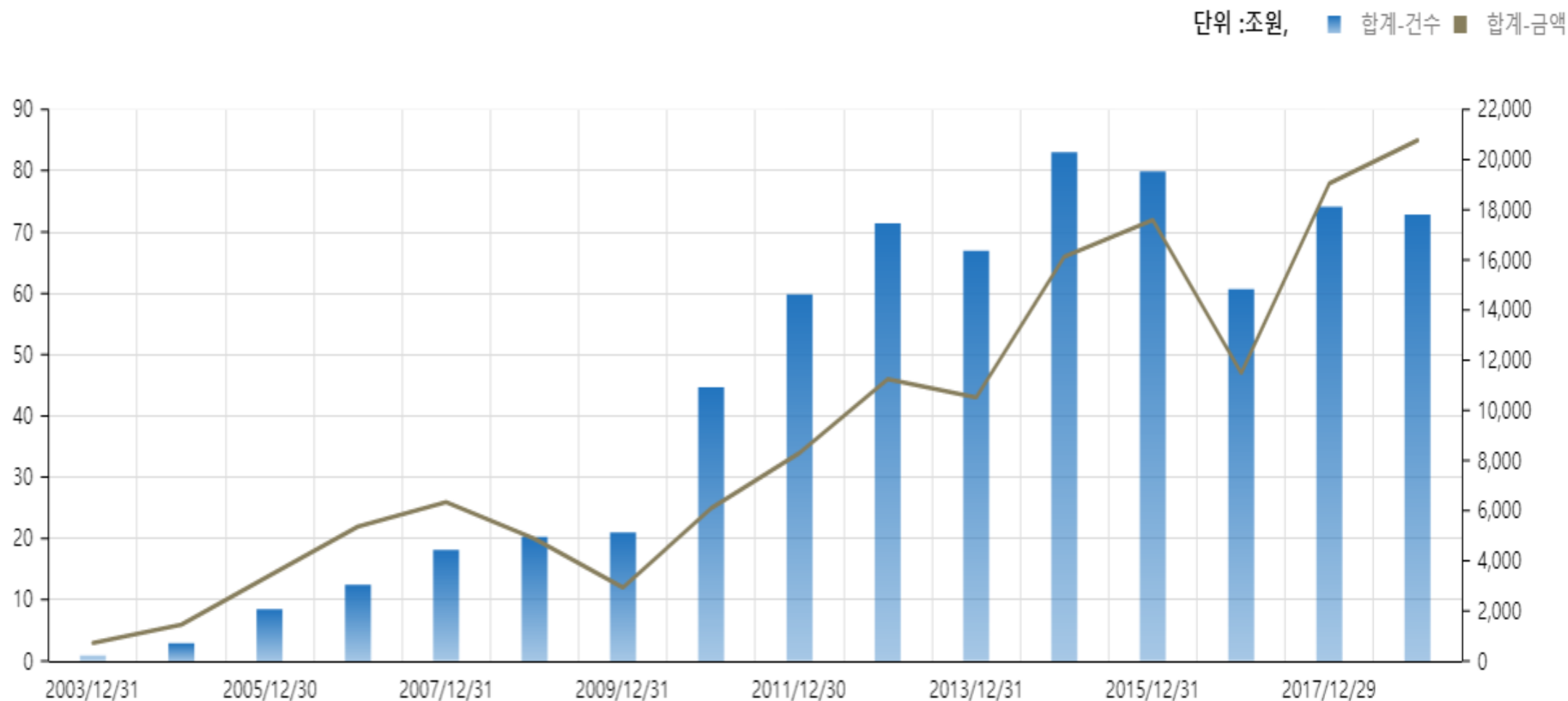
[2016년 초]

H지수 연계 ELS 대거 녹인 구간 진입

2. 2018년 & 2019년 ELS 발행 현황



2 ELS의 발행규모 (보장 + 비보장)



- 자료제공 : 금융투자협회 -

- 현재 키움증권 ELS 청약상품 -

■ 청약중 상품

ELS가입 유의사항

종목명	예상 수익률	유형	만기/ 평가주기	기초자산	위험도	원금	청약기간	청약률 (%)	간이투자 설명서
제987회파생결합증권 (주가연계증권)	최대 연 10.3%	3Star 스텝다운 조 기상환형 95/90/8 5/80/75/70	3년/ 6개월	EuroStoxx50 HSCEI 현대차 보통주	고위험	원금 비보장형	2019/04/3 0 ~ 2019/05/0 3	보기	보기
제988회파생결합증권 (주가연계증권)	최대 연 6%	2Star 스텝다운 조 기상환형 95/90/8 5/85/80/80	3년/ 6개월	KOSPI200 신한지주 보통주	고위험	원금 비보장형	2019/04/3 0 ~ 2019/05/0 3	보기	보기
제7회뉴글로벌100조파생결 합증권(주가연계)	최대 연 10.02%	고정쿠폰 월지급식	만기6개월	아마존닷컴 보통주 엔비디아 보통주	고위험	원금 비보장형	2019/04/3 0 ~ 2019/05/0 3	보기	보기

• 위 종목명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 KB증권

NOMURA

 NH투자증권

현대차증권

MIRAE ASSET

 유안타증권

22개 증권회사가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아

KYOBOTO  교보증권

ELS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
 신한금융투자
SHINHAN INVESTMENT CORP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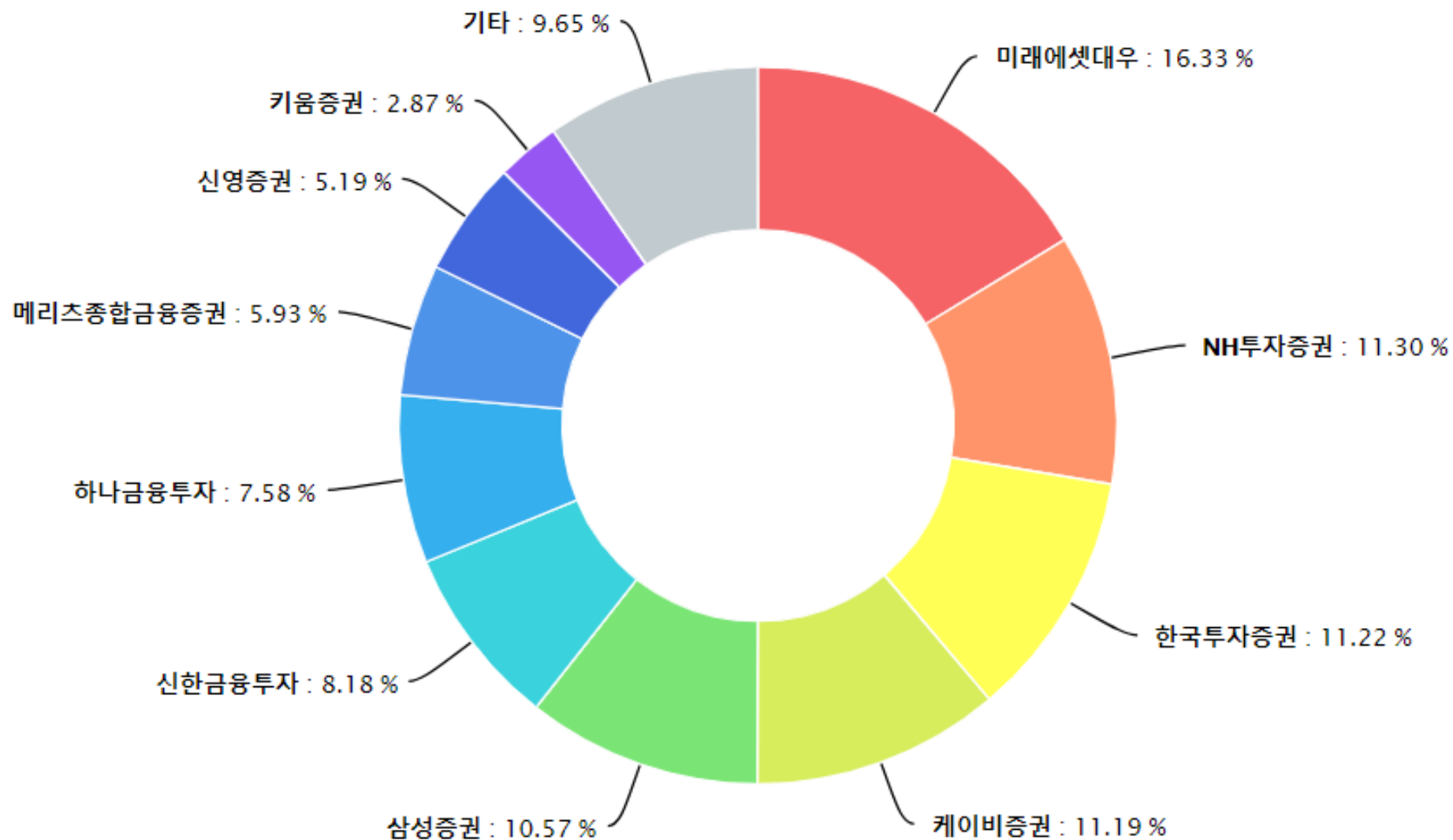
truefriend  한국투자 증권

 IBK기업은행 금융그룹
IBK투자증권

 하나금융투자
Hana Financial Investment

 MERITZ
메리츠증권

2018년 기준 ELS TOP 10 발행회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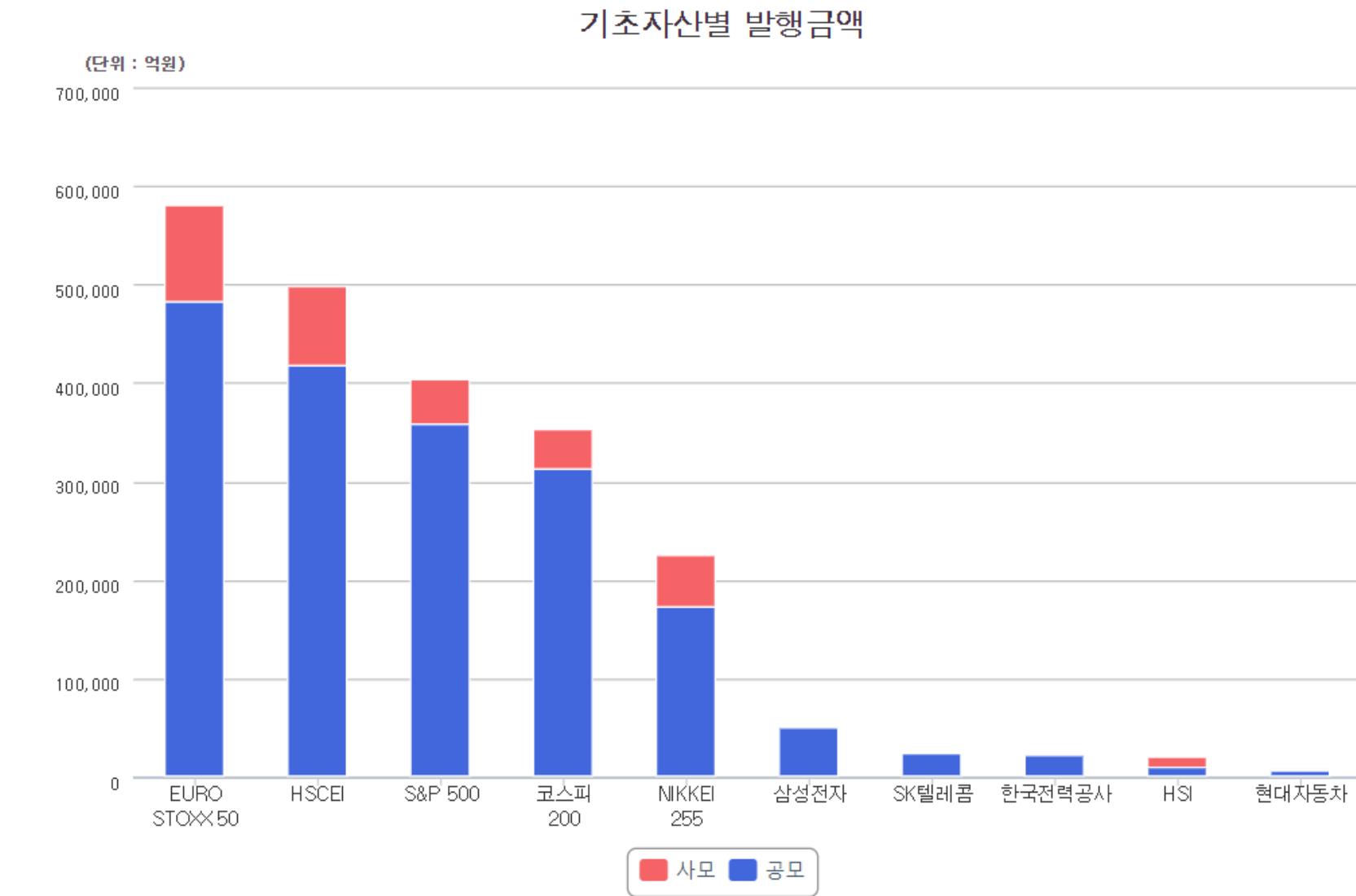
<자료제공 : 증권정보포털>

2018년 기준 ELS TOP 10 발행회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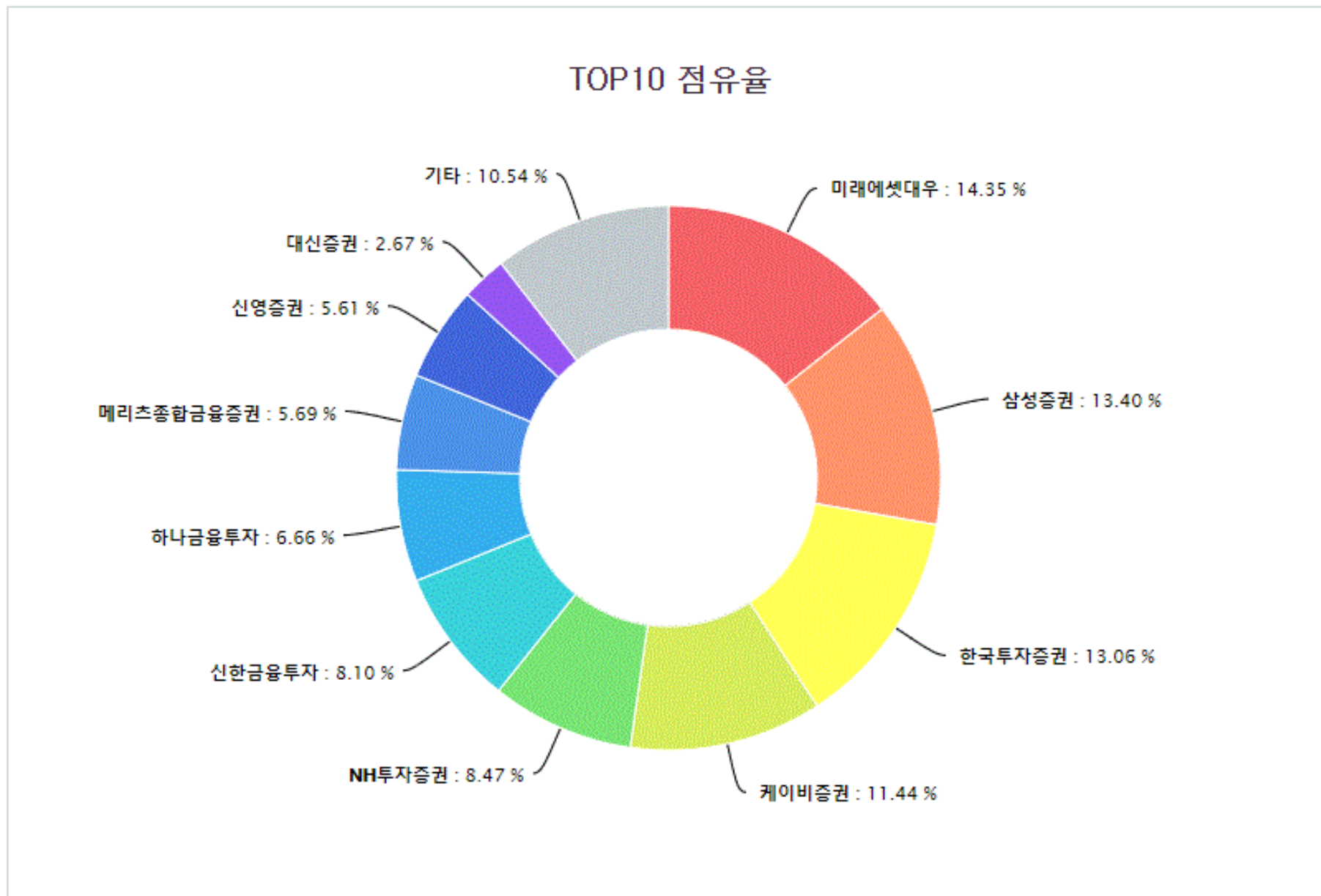
순위	발행회사	발행종목수			발행금액		
		공모	사모	전체	공모	사모	전체
1	미래에셋대우	1,164	746	1,910	12,600,372,465,870	1,540,904,872,600	14,141,277,338,470
2	NH투자증권	931	926	1,857	8,197,510,860,440	1,589,622,697,380	9,787,133,557,820
3	한국투자증권	1,567	587	2,154	8,848,286,243,670	873,892,571,100	9,722,178,814,770
4	케이비증권	1,085	1,035	2,120	7,769,640,327,500	1,923,269,050,614	9,692,909,378,114
5	삼성증권	1,791	978	2,769	7,453,271,330,030	1,703,476,064,800	9,156,747,394,830
6	신한금융투자	980	731	1,711	6,140,443,329,100	940,939,170,448	7,081,382,499,548
7	하나금융투자	651	586	1,237	5,031,361,556,460	1,531,643,176,465	6,563,004,732,925
8	메리츠종합금융증권	554	42	596	4,896,603,449,940	238,832,812,700	5,135,436,262,640
9	신영증권	605	133	738	4,186,987,241,960	311,526,508,053	4,498,513,750,013
10	키움증권	190	74	264	2,148,442,265,140	333,298,310,000	2,481,740,575,140
	전체	11,152	7,398	18,550	73,207,887,590,050	13,412,408,934,291	86,620,296,524,341

<자료제공 : 증권정보포털>

2018년 기준 ELS TOP 10 기초자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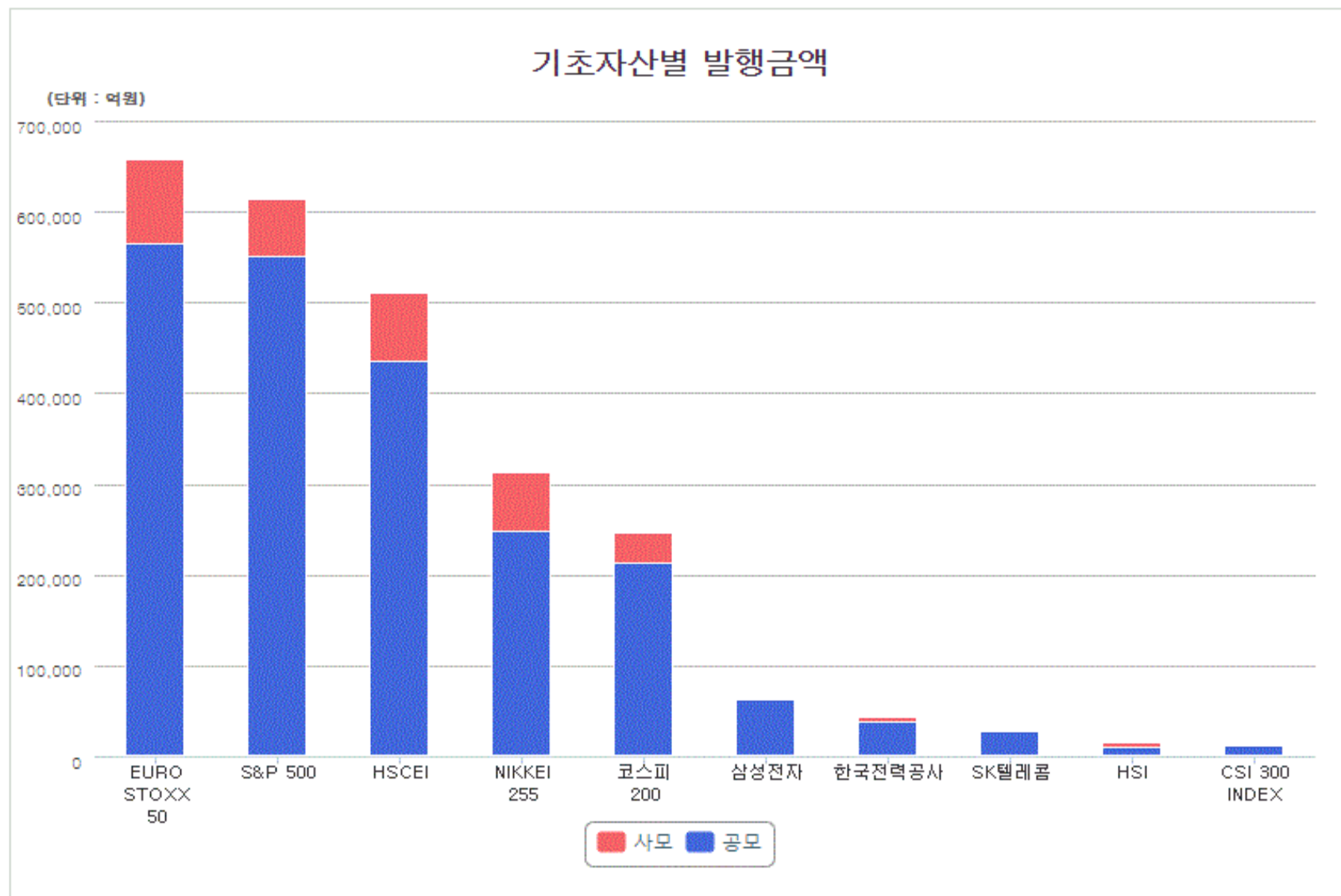
2019년 기준 ELS TOP 10 발행회사



점유율 산정기준은 발행금액입니다.

<자료제공 : 증권정보포털>

2019년 기준 ELS TOP 10 기초자산



복수의 기초자산을 편입한 경우, 각각의 기초자산에 발행금액이 중복 계산됩니다.

<자료제공 : 증권정보포털>

3. ELS 특성



- 변동성이 큰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선호 (HSCEI 및 SX5E)
- 투자자 분포는 50대가 30.6%로 가장 많고 60대 22.2%, 40대 20.5% 순
-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400만원 수준
- 신규 투자자 비중이 30.1%로 신규 진입이 활발
- 은행신탁을 통한 판매 비중 증가

A person with long brown hair, wearing a light blue button-down shirt, is sitting at a wooden desk. They are holding a wooden pencil in their right hand, resting their chin on it in a thoughtful pose. A black ring is visible on their right ring finger. In front of them is a silver laptop, which is open. The desk is cluttered with several white papers, some of which have colorful sticky notes (yellow, green, orange) attached to them. The background is a blurred office environment with large windows. The text "4. ELS 손익구조"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in a bold, black, sans-serif font.


4. ELS 손익구조

4-1. ELS 상품 선택


종목명 : 대우증권 제11177회 추가연계증권 (원금비보장형)



<u>기초자산</u>
KOSPI 200
HSCEI
EuroStoxx50



<u>종류</u>
스텝다운 낙인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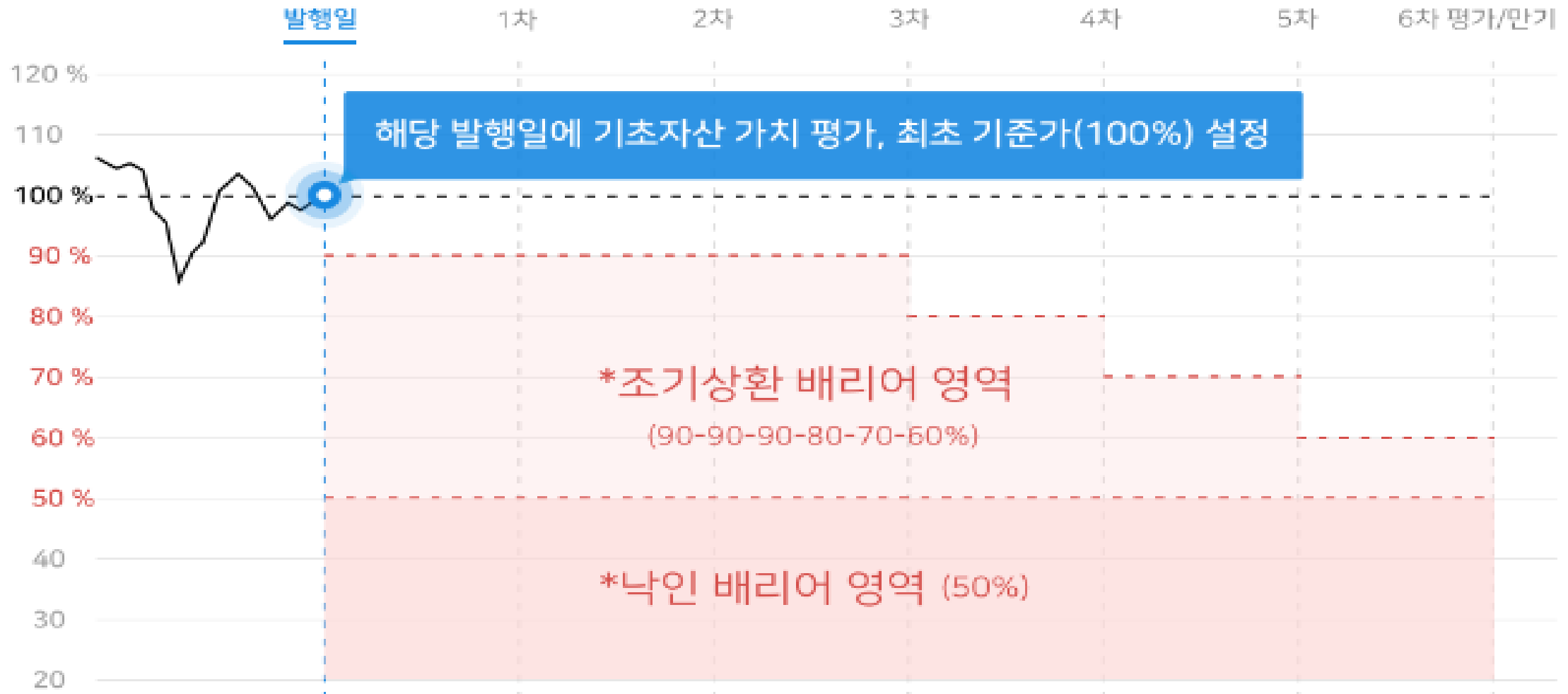


<u>청약금액</u>
198억원

종류	원금보장형	조기상환형
조기상환형	X	O
계단식 노낙인(No Knock-In) / 스텝다운형 노낙인(Stepdown No K.I)	X	O
계단식 낙인(Knock-In)/스텝다운형 낙인(Stepdown K.I.)	X	O
계단식 월지급/스텝다운형 쿠폰(Stepdown Coupon)	X	O
하이파이브(Hi-Five)	O	O
낙아웃	O	X
양방향 낙아웃	O	X

<자료제공 : ELS 리서치>

4-3. 스텝다운 낙인형



대우증권 제11177회 주가연계증권 (원금비보장형)

cf) 2014년 당시 은행 금리
 : 정기 예금 2.42% (연리)
 정기 적금 2.66% (연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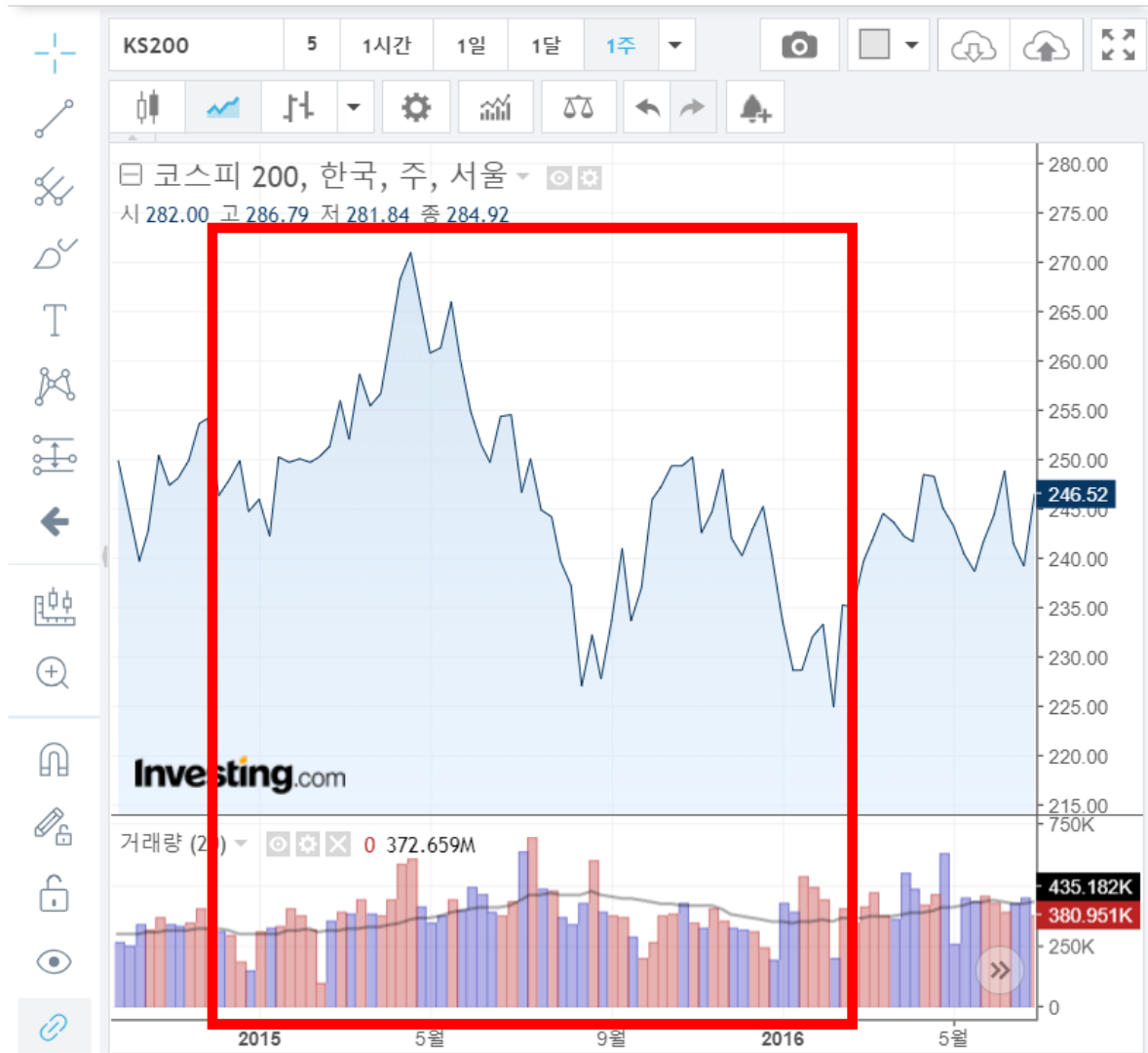
구 분	내 용	투자수익률 (세전)
자동 조기상환	(1)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<u>각 최초기준가격의 [85%] 이상인 경우</u> -> 액면금액 * 103.25% 지급 (2)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<u>각 최초기준가격의 [85%] 이상인 경우</u> -> 액면금액 * 106.50% 지급 (3)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<u>각 최초기준가격의 [80%] 이상인 경우</u> -> 액면금액 * 109.75% 지급 (4)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<u>각 최초기준가격의 [80%] 이상인 경우</u> -> 액면금액 * 113.00% 지급 (5)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<u>각 최초기준가격의 [75%] 이상인 경우</u> -> 액면금액 * 116.25% 지급	연 6.50%
만기상환	(6)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<u>각 최초기준가격의 [70%] 이상인 경우</u>	19.50% (연 6.50%)
	(7) 위 (6)에 해당하지 않고,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<u>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단 1회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[55%]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(종가기준)</u> (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)	19.50% (연 6.50%)
	(8) 위 (6)에 해당하지 않고,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<u>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단 1회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[55%]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(종가기준)</u> (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)	기준종목 기준으로 $\{(\text{만기평가가격} / \text{최초기준가격}) - 1\} \times 100\%$

*기준종목: 모든 기초자산 중 [만기평가가격 / 최초기준가격]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

5. • H지수 연계 ELS 대거 녹인 구간 진입

코스피 200 284.92 -1.87 (-0.6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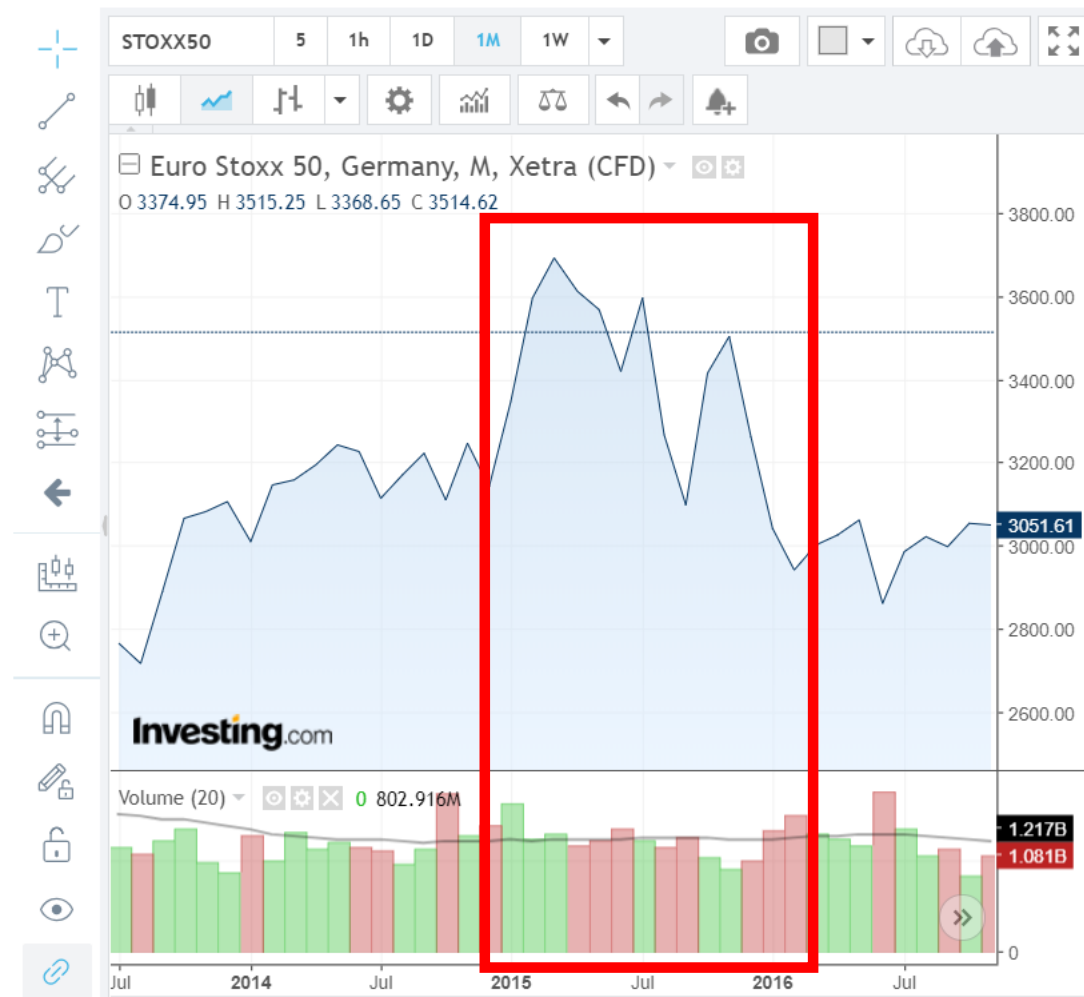
거래 시작하기



Euro Stoxx 50 3,514.62 +12.68 (+0.36%)

START TRADING NOW

Euro Stoxx 50 Streaming Chart



5. H지수 연계 ELS 대거 녹인 구간 진입

항생 차이나기업(H) HSI@HSCE 홍콩 2019.04.30 16:09 현지시간 기준 | 15분 지연제공

11,542.25

전일대비 ▼95.93(-0.82%)

| 전일 11,638.18

| 고가 11,609.52

| 52주 최고 12,589.53

| 시가 11,597.10

| 저가 11,492.21

| 52주 최저 9,761.6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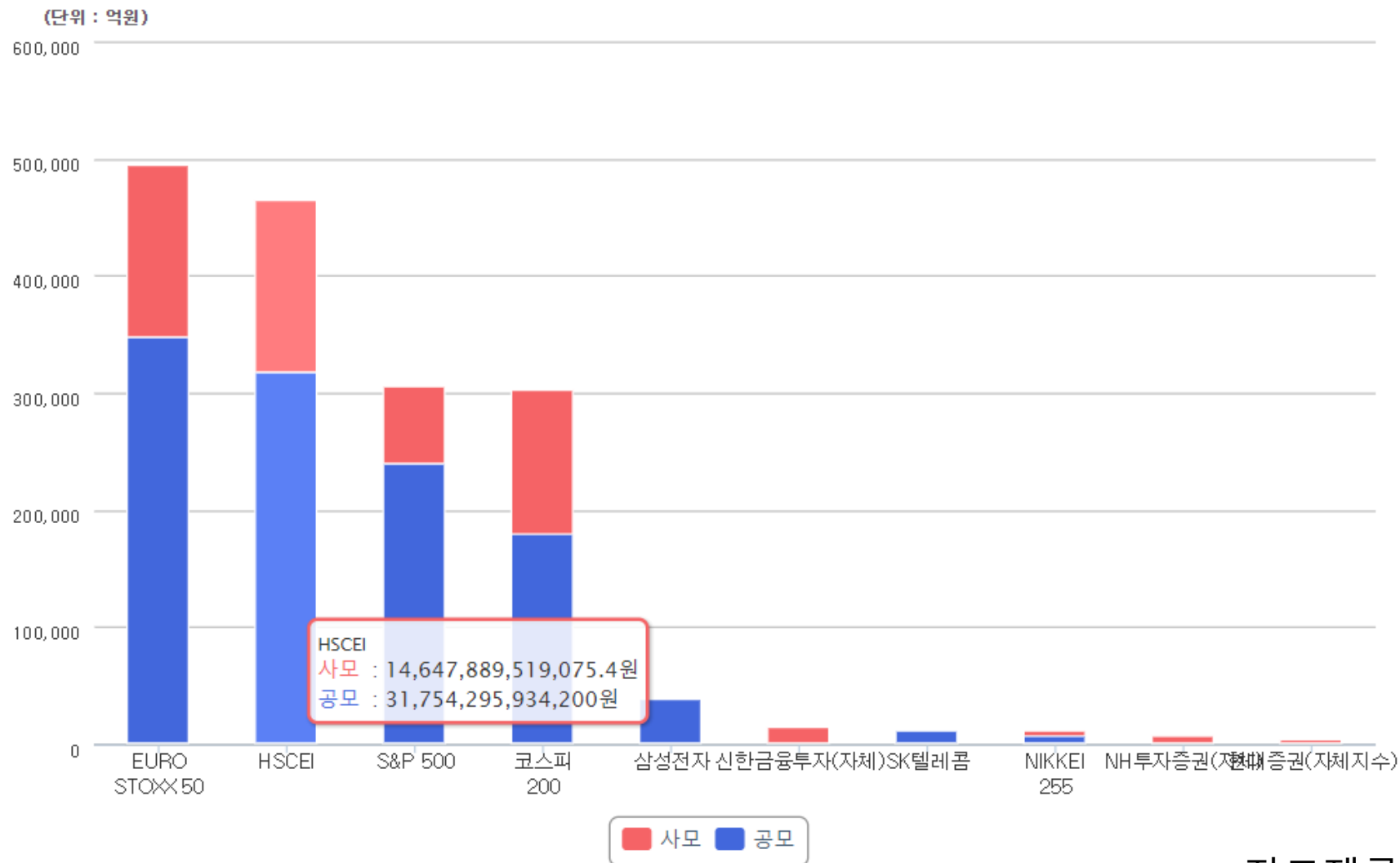
선차트 3개월 | 1년 | 3년 | 5년 | 10년

봉차트 일봉 | 주봉 | 월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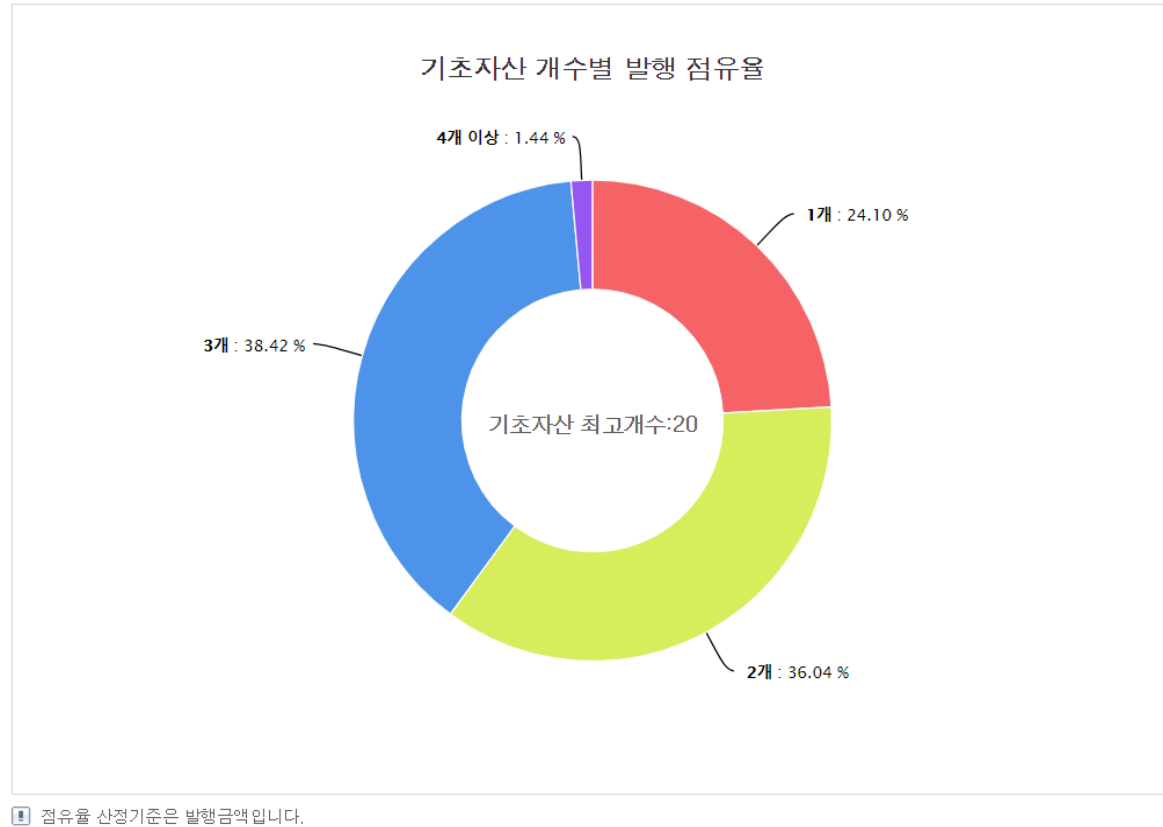
5-1. 2015년 당시 ELS 기초자산별 발행금액

기초자산별 발행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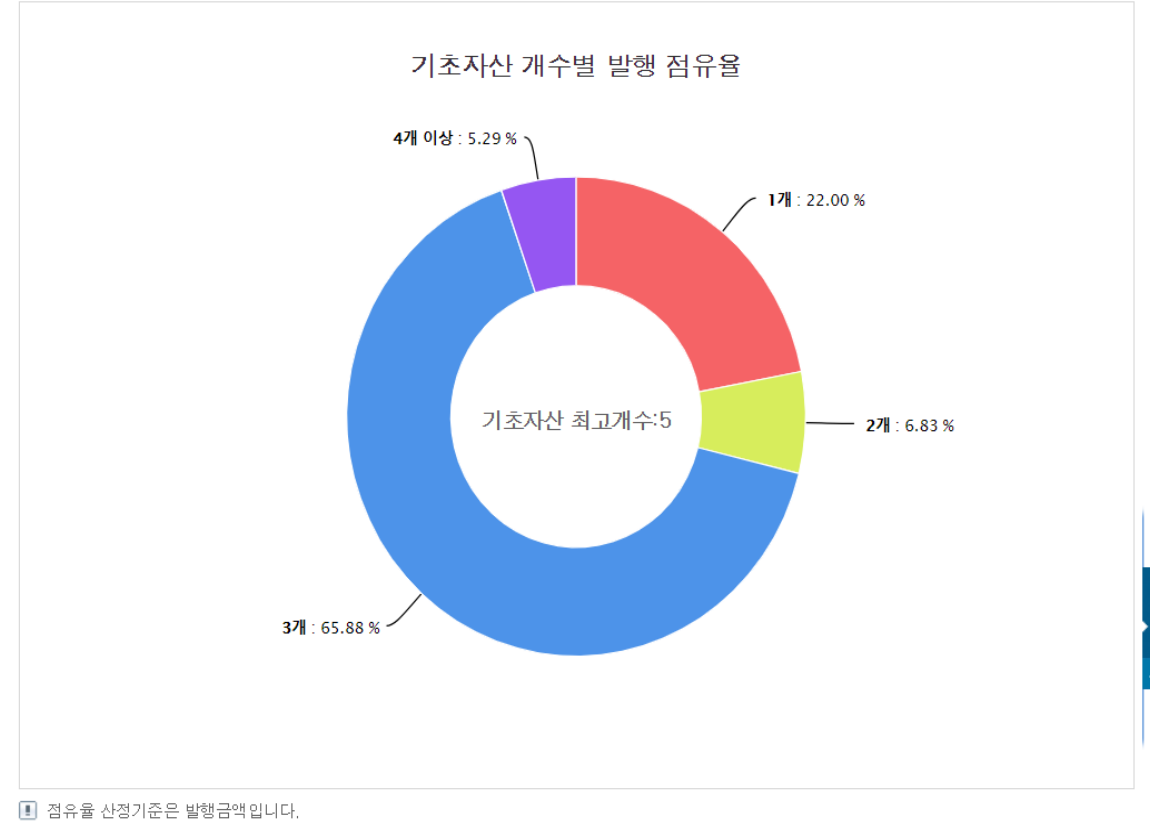


<자료제공 : 증권정보포털>

5-2 ELS 기초자산의 개수가 늘어난 이유는?



<2015년>



<2018년>

<자료제공 : 증권정보포털>

증권업계는 홍콩 H지수가 8,000선이 붕괴되면 녹인 배리어(Knock-in barrier·원금손실구간)에 진입해 확정되는 손실액이 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.

12일 연합뉴스 글로벌 증시종합(화면번호 7200)에 따르면 전일 홍콩 H지수는 340.73포인트(3.85%) 하락한 8,505.15를 기록했다. 연초 이후 급락세를 이어오며 그간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8,800선이 붕괴된 H지수는 지난 8일 1% 대의 반등에 나서는 듯 보였지만, 하룻새 급락세를 반복하며 8,500선까지 주저앉았다.

앞서 홍콩 H지수가 8,700선을 기록하면서 증권가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손실 확정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내다봤다. 하지만 지수가 4% 가까이 추가 하락하면서 이미 예상 손실액은 3조 원 가까이로 늘어난 상태다.

실제로 연합뉴스의 홍콩 H지수 추가 하락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8,700 기준 녹인 구간에 진입한 공모형 ELS는 388개로 손실 확정액이 1조4천320억 원에 달했다.

이후 지수가 5% 추가 하락한 8,265에 이르면 970개 종목이 3조2천640억 원의 손실을 확정할 것으로 집계됐다.

홍콩 H지수가 10% 추가 하락하며 7,830선에 이르면 1천465개 종목이 녹인 구간에 진입, 5조8천880억 원의 손실을 확정할 것으로 나타났다. 15% 추가 하락한 7천395에 이르면 1천915개 종목이 녹인을 기록하며 손실 확정액은 8조1천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.



THANK YOU

Ponybuhagom.tistory.com